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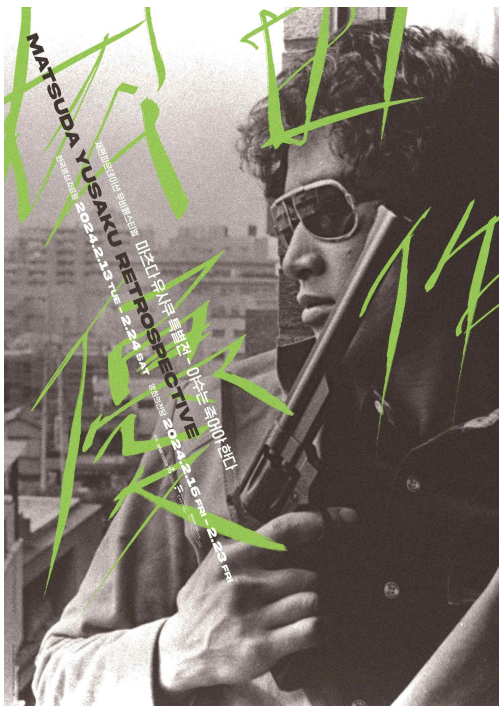
보 도 자 료

일본 영화사를 빛낸 명배우 '마츠다 유사쿠'의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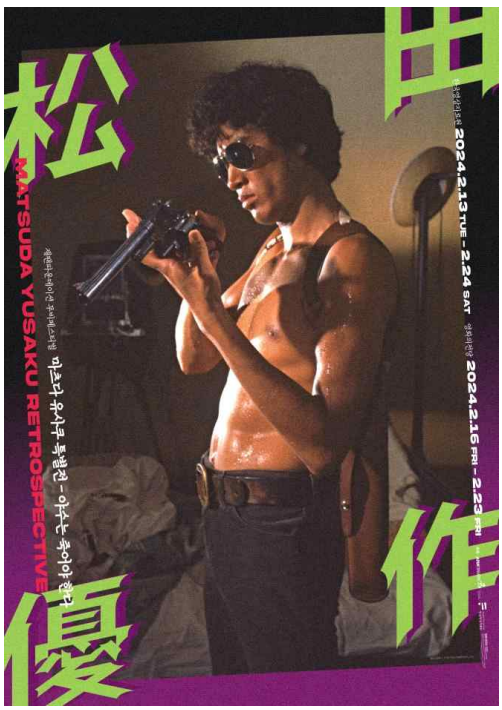
: 한국영상자료원, 2월 13일(화)부터 24일(토)까지 '마츠다 유사쿠 특별전' 개최

: 일본의 전설적인 액션 배우 '마츠다 유사쿠' 초기작 및 대표작 등 총 11편 상영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영화의전당(대표 김진해)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소장 가토 타케시)와 함께 오는 2월 13일(화)부터 2월 24일(토)까지 시네마테크KOFA(서울 상암동 소재), 2월 16일(금)부터 2월 23일(금)까지 영화의전당(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마츠다 유사쿠'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제12회 재팬 파운데이션 무비 페스티벌: 마츠다 유사쿠 특별전-야수는 죽어야 한다'를 개최한다. 마츠다 유사쿠의 초기작부터 대표작까지 총 11편('영화의전당' 9편 상영)의 주요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귀중한 기회를 마련한다. 이번 마츠다 유사쿠 특별전을 통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수많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에서 오마주 된 그의 개성 넘치는 영화 세계를 들여다보고, 빛나는 성취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마츠다 유사쿠 특별전 포스터1



▲마츠다 유사쿠 특별전 포스터2

□ 마츠다 유사쿠

일본의 전설적인 액션 배우로 한 시절을 풍미한 마츠다 유사쿠(松田優作 / Yusaku Matsuda, 1949.9.21.~1989.11.6.)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1973년 TV 드라마 <태양을 향해 외쳐라>에서 형사 역으로 출연한 뒤, 같은 해 <늑대의 문장>으로 스크린에 데뷔하여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후 다수의 액션 드라마에 출연하며 큰 키와 개성 넘치는 외모에 독특한 카스리마까지 더해져 자신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창조해 인기를 누리게 된다. 1979년 TV 드라마 <탐정 이야기>에서 중절모를 쓰고 능청스러운 괴짜 탐정 역할을 맡아 전성기를 맞이한다. 비슷한 시기 <인간의 증명>, 유희 시리즈 3부작(<가장 위험한 유희>, <살인유희>, <처형유희>), <야수는 죽어야 한다> 등 하드보일드 액션 영화에서 활약하며 당대 최고의 액션 스타의 자리를 굳건히 한다. 1980년대부터는 <가족 게임>, <폭풍의 언덕> 등으로 각종 영화제를 석권하며 연기력까지 인정받았고, 1989년 <블랙 레인>으로 할리우드까지 진출했으나 지병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유작이 되었다. 일본 영화사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로 불리는 마츠다 유사쿠는 <카우보이 비밥>의 *스파이크 스피겔*, <원피스>의 *아오키지 쿠잔* 등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오마주되며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마츠다 유사쿠 특별전**'에서는 총 11편('영화의전당'은 <블랙 레인>, <아지랑이좌>를 제외 9편 상영)의 작품이 상영된다. 모리무라 세이치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마츠다 유사쿠의 지명도를 알린 **<인간의 증명>**, 킬러 역할로 마츠다 유사쿠의 인기를 결정적으로 높여준 유희 3부작 **<가장 위험한 유희>**, <**살인유희>**, <**처형유희>**, 신망이 두터운 대기업 직원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 **<되살아나는 긴로>**, 속을 알 수 없는 어둡고 섬뜩한 야수 역을 맡아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인 <**야수는 죽어야 한다>**, 스즈키 세이준 감독의 '다이쇼 낭만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으로 독특한 영상미를 선보이는 **<아지랑이좌>(35mm),** 마츠다 유사쿠와 당대의 아이돌 스타 야쿠시마루 히로코와의 연기 호흡이 돋보인 <**탐정이야기>**, 요시다 기주 감독이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마츠다 유사쿠의 광기 어린 연기가 인상적인 **<폭풍의 언덕>**, 괴짜 가정교사로 코믹한 연기를 선보인 마츠다 유사쿠와 모리타 요시미츠 감독의 재기 넘치는 연출이 돋보인 <**가족게임>,**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하고 다카쿠라 켄, 마츠다 유사쿠 등 일본의 호화 배우 출연으로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된 **<블랙 레인>**을 상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하드보일드한 킬러부터 괴짜 가정교사까지 폭넓은 마츠다 유사쿠의 연기 세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①] 프로그램 정보

<제12회 재팬 파운데이션 무비 페스티벌: 마츠다 유사쿠 특별전-야수는 죽어야 한다>

주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의전당
후원: 일본국립필름아카이브 (NFAJ)

■ 기간
한국영상자료원: 2024년 2월 13일(화) ~ 2월 24일(토)
영화의전당: 2024년 2월 16일(금) ~ 2월 23일(금)
■ 입장료
한국영상자료원: 무료
영화의전당: 일반 5,000원/ 유료회원(프리미엄, 골드) 무료
■ 상영작
한국영상자료원: <인간의 증명> 등 11편 *(※<아지랑이좌>, <블랙레인>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만 상영)*
영화의전당: <인간의 증명> 등 9편
■ 상영 소개 페이지
한국영상자료원: www.koreafilm.or.kr/cinematheque/programs/PI_01523
영화의전당: www.dureraum.org

이보다 멋진 배우가 있을까? 눈에 띄는 신체 조건에 개성 넘치는 외모와 분위기로 1970년대 ~ 1980년대 장르를 넘나들며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특유의 멋을 발산한 이 배우, '카우보이 비밥'의 *스파이크 스피겔*, '원피스'의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 쿠잔* 등 숱한 애니메이션과 게임 캐릭터의 모델이 되었던 이 배우, 영화를 위해 본인의 지병을 숨겼던 이 배우, 마츠다 유사쿠만큼 멋진 배우가 또 있을까?

1949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출생. 1973년 <태양을 향해 외쳐라>라는 경찰 드라마로 데뷔한 후 그는 곧 영화 <늑대의 문장>에 출연하게 된다. 185cm의 장신에 가라테로 단련된 그는 다수의 하드보일드 액션 드라마로 인기를 누리게 되고 1979년부터 그의 대표작인 TV드라마 <탐정 이야기>에 덥수룩한 곱슬머리와 중절모를 쓰고 다소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탐정 *쿠도 슌사쿠*를 연기한다. 모리무라 세이치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인간의 증명>부터 '유희 시리즈 3부작', <야수는 죽어야 한다>로 1970년대 하드보일드 액션 영화의 최고 스타가 된 그는 1980년대부터는 모리타 요시미츠 감독의 <가족게임>, 요시다 기주 감독의 <폭풍의 언덕> 등에 출연하여 폭넓은 연기를 보여준다. 일본 아카데미 우수 남우주연상 및 키네마 준보 남우주연상 등 다수의 주요상을 수상하며 실력 있는 연기를 보여준 그는 1989년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랙 레인>으로 할리우드에 데뷔하였으나 지병이 악화되어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번 특별전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영화의 전당과 함께 1977년 <인간의 증명>부터 유작이 된 <블랙 레인>까지 그의 주요작을 살펴보며 이제는 전설이 된 그를 추모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②] 상영작 정보

<인간의 증명>(4K), 사토 준야 감독, 1977, DCP
도쿄 중심부의 한 호텔에서 흑인 청년 *조니 헤이워드*가 칼에 찔린 채 발견된다. 경찰은 그가 '스토우하'라는 의문의 말과 낡은 시집을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고 뉴욕의 경찰과 합동 수사를 하게 된다. 한편, 사건 당일 밤 호텔에서는 유명 패션 디자이너 *야스기 쿄코*의 패션쇼가 열리고 그의 아들은 한 여성을 차로 치게 된다.

2023년 타계한 사회파 추리 소설가 모리무라 세이치의 대표작인 동명 소설을 영화화하였다. 마츠다 유사쿠, 오카다 마리코, 조지 케네디, 미후네 토시로 등 호화 출연진에 일본 영화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뉴욕 로케이션 촬영으로 거액의 제작비와 홍보비를 들였으나 "다소 허무한 느낌. 마츠다 유사쿠의 연기는 우스꽝스럽다"(아사히 신문)라는 혹평을 받았다. 이에 원작자 모리무라 세이치가 격분하여 영화 평론가들을 맹렬히 비판했다고!

<가장 위험한 유희>, 무라카와 토루, 1978, DCP
국방부의 방공 경계 시스템 수주를 둘러싸고 토니치 그룹과 고다이 그룹 사이에 치열한 암투가 펼쳐지던 중 토니치전기 사장 *난조*가 귀가 중 납치된다. 킬러 *나루미*는 *난조*를 구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유괴 사건의 핵심인 *이고*의 거처를 밝혀내기 위해 그의 애인 *쿄코*를 납치한다. *나루미*는 *난조*를 구출하나 탈출 도중 괴한의 저격으로 *난조*는 사살되고 그 역시 극심한 부상을 당한다.

하드보일드 액션 영화 '유희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으로 마츠다 유사쿠가 계략과 음모가 난무하는 재계 조직에 도전하는 킬러 *나루미 쇼헤이* 역할을 맡아 박진감 넘치는 액션 장면을 보여준다.

<살인유희>, 무라카와 토루, 1978, DCP
두산회 회장을 살해하고 목격자인 *미사코*를 놓친 채 일본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나루미*는 5년만에 귀국한다. 후배 *분타*와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던 중 그는 일류 클럽 아라비카의 마담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사코*를 만나게 된다.

'유희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으로 전작 <가장 위험한 유희>의 호평에 이어 후속작으로 만들어졌다. 전작에 비해 유머러스한 캐릭터가 더해졌다.

<처형유희>, 무라카와 토루, 1979, DCP
*나루미*는 단골 술집에서 알게 된 피아니스트 *나오코*와 헤어진 후 누군가에게 납치된다. 결국 감금된 방에서 탈출을 한 그는 이 사건이 특수기관의 테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관의 비밀을 너무 알게 된 킬러 *오카지마*를 살해하라는 임무를 받는다.

'유희 3부작'의 마지막 영화로 마츠다 유사쿠의 "이번엔 <사무라이>(장 피에르 멜빌이 감독한 작품으로 알랭 들롱이 무표정한 킬러 역을 맡은 영화)로 가자"라는 제안으로 2편에 비해 코믹한 장면이 전혀 없는 심각한 영화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되살아나는 긴로>, 무라카와 토루, 1979, DCP

29세의 대기업 샐러리맨 *아사쿠라 테츠야*는 성실한 직원으로 사내에서 신망이 두텁다. 그러나 사실 그는 밤이 되면 복싱장에서 몸을 단련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토와유지를 인수하려는 야망에 불타고 있는 남자이다. 어느 날, 은행의 현금 수송차를 습격해 거액을 강탈하는데 성공한 그는 그 돈을 안전한 지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얻은 마약을 이용해 상사의 애인 *쿄코*를 유혹한다. *쿄코*의 정보로 회사의 내부 사정을 파악한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방해꾼들을 차례로 제거해 나간다.

오야부 하루히코의 동명 하드보일드 소설을 원작으로 '유희 3부작'의 무라카와 토루 감독이 영화화하였다. "권총에는 시대극의 칼과 같은 미학이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일본 영화계에 '총기 액션'을 시도한 작품으로, 제작사에서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진 마츠다 유사쿠를 특별히 기용했다고 한다. 마츠다 유사쿠는 이 영화를 위해 하와이에서 일주일간 오천발의 총을 쏘는 훈련을 받았다는 뒷이야기도 있다.

<야수는 죽어야 한다>, 무라카와 토루, 1980, DCP

어느 폭우가 쏟아지는 밤, 도쿄 도내에서 경시청 수사 제1과 *오카다 요시오* 경위가 칼에 찔려 살해당하고 권총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 권총을 들고 불법 카지노에 들어와 무차별 살인을 하고 유유히 도주한다. 사건을 일으킨 *다테 쿠니히코*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전직 사격선수로, 카메라 맨으로 세계 각지의 전장을 취재하면서 '야수'로 변한 것이다. 한편 *오카다*의 부하 *카시와기* 형사는 그를 눈여겨보고 쫓아다니기 시작한다.

오야부 하루히코의 인기 소설을 세 번째로 영화화한 작품이나 캐릭터 설정 및 배경 등 여러 가지로 원작과 매우 다르다. 속을 알 수 없고 어둡고 섬뜩한 야수를 연기하기 위하여 마츠다 유사쿠는 크랭크인 전에 스텝들과 연락을 끊고 야위어 보이도록 10킬로그램 감량과 더불어 어금니 위아래 총 4개를 뽑았다고 한다. 창백한 얼굴의 유령 같은 그의 연기와 난해한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인 영화다.

<아지랑이좌>, 스즈키 세이준, 1981, 35mm

1920년대 다이쇼 시대의 일본. 신파 극작가인 *마츠자키*는 묘령의 여인을 우연히 여러 차례 마주치게 된다. 그녀가 *타마와키* 남작의 아내로 그녀 외에도 남작이 독일 유학시절 만나 결혼한 *이레네*라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츠자키*는 그녀에게서 '가나자와에서 기다리겠다'라는 편지를 받고 약속 장소로 향한다.

이즈미 교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스즈키 세이준 감독의 '다이쇼 낭만'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으로 독특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다소 난해한 영화이다. 당시 액션배우로 유명세를 떨치던 마츠다 유사쿠를 캐스팅한 스즈키 세이준 감독은 직경 1m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만 연기하도록 지시하여 그의 새로운 연기를 이끌어 내었다고 한다.

<가족게임>(4K), 모리타 요시미츠, 1983, DCP

누마타 일가의 차남 *시게유키*는 고교 입시를 앞두고 있다. 우등생인 형 *신이치*와 달리 형편없는

성적에 문제아인 그를 위해 아버지 *고스케*는 삼류 대학생 *요시모토*를 가정교사로 채용한다. 아들의 성적이 오르면 보너스를 주겠다는 *고스케*의 제안에 *요시모토*는 그만의 방법으로 *시게유키*를 가르치고 점차 *시게유키*의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다.

1981년 스바루 문학상을 수상한 혼마 요헤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모리타 요시미츠 감독이 영화화하여 그 해 일본 아카데미상 감독상, 작품상, 남우주연상 (마츠다 유사쿠), 남우조연상(이타미 주조) 및 블루리본상, 키네마 준보 베스트 텐 1위 등 다수의 상을 휩쓸었다. 가족들이 일렬로 앉아 소통없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인상적인 이 영화는 당시 일본 중산층 사회를 흥미롭게 비판하고 있다. 언제나 식물도감을 가지고 다니는 괴짜 가정교사 *요시모토*를 마츠다 유사쿠가 코믹하게 연기한다.

<탐정이야기>(4K), 네기시 키치타로, 1983, DCP
부잣집 딸 *아라이 나오미*는 미국행을 일주일 앞두고 예전부터 동경하던 학교 선배 *나가이*와 함께 호텔을 방문한다. 그런데 갑자기 삼촌이라며 한 남자가 뛰어들어 *나가이*를 쫓아낸다. 알고 보니 사설탐정 *츠지야마 슈이치*로 그녀를 돌봐주고 있는 아버지의 전 비서 *하세누마*가 고용한 보디가드. 그러던 중, *츠지야마*의 헤어진 아내 *유키코*가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고 *나오미*는 *츠지야마*에게 함께 범인을 찾자고 제안한다.

아카가와 지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마츠다 유사쿠 주연의 TV 시리즈 <탐정 이야기>와는 다른 작품으로 1981년 <세일러복과 기관총>으로 인기 절정이었던 아이돌 스타 야쿠시마루 히로코가 주연을 맡았다. 두 주연 배우의 설득력 있는 연기와 묘한 케미가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살려주는 흥미로운 영화이다. 마츠다 유사쿠는 TV 시리즈 <탐정 이야기>의 *쿠도 슌사쿠*와 전혀 다른 진중하고 우유부단한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폭풍의 언덕>, 요시다 기주, 1988, Blu-ray
중세 가마쿠라 시대 일본, 제사를 담당하는 야마베 가문의 동쪽 당주 *다카마루*는 어느 날 도성에서 기이하게 생긴 남자아이를 데려온다. 그의 아들 *히데마루*는 *오니마루*란 이름을 받은 그를 적대시한다. 그러나 딸 *기누*는 그를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야마베 일족의 장남과의 결혼 전날 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한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요시다 기주 감독이 일본 가마쿠라 시대로 배경을 바꾸어 영화화하였다. 원작 소설처럼 황량하고 음산한 언덕에서 파멸적인 운명에 휩싸인 연인을 비극적으로 그리고 있다. 섬뜩한 광기를 뿜어내는 *오니마루*의 마츠다 유사쿠와 단아한 아름다움이 빛나는 *기누*의 다나카 유코가 인상적이다.

<블랙 레인>, 리들리 스콧, 1989, DCP
뉴욕 경찰 *닉 콘클린*과 *찰리 빈센트*는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살인극을 벌인 일본의 젊은 야쿠자 두목 *사토*를 체포한다. 두 사람은 *사토*를 일본으로 압송하기 위해 오사카에 도착하지만 오히려 경찰로 변장한 야쿠자 일당에게 *사토*를 빼앗기고 야쿠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찰리*는 죽음을 당하

고 만다. 슬픔에 빠진 *닉*과 일본 형사 *마츠모토*는 필사적으로 *사토*를 쫓는다.

다카쿠라 켄, 마츠다 유사쿠 등 일본의 호화 배우 출연으로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된 작품이다. 극장 영화로는 마츠다 유사쿠의 유작이다.